

東南亞 諸國과의 農產物 交易에 관한 研究

沈 永 根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Study on the Trade Potenti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Young Kun Shim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way of increasing agricultural trade through investigating agricultural trade aspects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2. As the main industry of all the countries except Japan is agriculture, agricultural products occupies large part of products exported in these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low level of technology and shorts of products to be exported, the traded amoun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so much.
3. In view of industrialization, these countries are similar to Korea. Therefore, Korea can hardly expect to increase trade amount only with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se countries emphasis on the import of capital goods.
4. The climate and the level of production technology of these countries differ greatly respectively.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Korea has to develop strategic goods considering the facts mentioned above.

I. 經濟成長과 農產物輸出

後進國에 있어서 經濟成長의 高度化를 위해서는 國內工業의 生産設備에 대한 增加가 要求되며 이를 위한 生産資材의 大部分은 先進國으로 부터 輸入하므로써 質에 있어서 優秀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얻을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진국으로 하여금 資材의 輸入은 앞으로는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는 所得向上에 따르는 消費財의 需要增加를 充足할 輸入마저 생각할 수 있다.

增加되는 輸入을 可能하게 하는 것은 外國의 借款 혹은 援助에 依해 우선은 달성되나 거기에는 앞으로 增加된 輸出이 前提가 된다. 後進國에서 生産된 第二

次 產品은 그 대개 先進國에 있어서와 같은 生産技術下의 製品이 아니므로 自由로운 國際市場에서 先進諸國과 對等의 條件下에서 競爭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나라에 따라서는 輸出對象國과 특별한 貿易協定 또는 輸出製品에 대한 補助政策을 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制約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後進國에서는 그 나라의 主産業인 第一次産業의 生産物을 輸出하는데 重點을 두기도 한다.

第一次 産業은 生産技術의 모든 條件이 人爲로서 左右할 수 있는 範圍가 좁고 自然에 支配되는 幅이 크므로 보다 많은 輸出을 위한 增産에는 資本의 增設이 要求된다. 그러나 農業에 投入된 資本의 限界 收益率이 工業에 投入되었을 때 보다 一般적으로 낮

기 때문에 必要한 資本의 流入에 많은 制約이 있다. 거기에서 第一次 商品에 대한 先進國의 需要는 지난 날 石油과 原鑛石을 除外하고는 그들의 所得增加率을 따르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人口와 所得面에 있어서 보다 많은 增加가 있다해도 第一次 產品에 대한 先進國의 需要는 第二次 產品처럼 增大될 可能性이 적다.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農産物의 輸出로서 必要한 資本財 및 消費材를 導入해야 하는데 先進國에 의한 後進國의 農産物需要의 彈力性이 낮은데다가 스스로의 急増되는 人口와 所得의 向上에 基因되어 現在와 같은 農業生産力으로서의 輸出할 餘裕마저 없다는 것이 高질화되어 가는 하나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狀態下에 있다하더라도 自給自足を 위한 生産構造가 언제나 有利한 것은 못되며 各國이 지니는 自然的條件과 技術의水準에 있어서의 差異는 相對的으로 有利한 生産物이 있게 된다. 이 경우 交易에 의해 國內生産과 消費에 있어서의 有無長短을 補完한다면 專門化된 農業, 大量生産에서

오는 利益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交易의 增大는 서로 擴大된 市場을 提供하는데 큰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을 위해 必要한 資材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1) 東南亞諸國의 交易額

日本을 除外한 東南亞의 여러나라는 尙今도 農業爲主의 國家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低度의 生産技術下에 農業이 營爲되고 있다. 거기에서 이들 나라에서는 많은 人口를 扶養해야 하므로 國際交易에 있어서의 東南亞 諸國, 即 버마, 캄보디아, 대만, 이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마레이아, 파키스탄, 필립핀, 태국, 월남의 比重은 尙古히 낮다. 다시 말해서 世界의 人口에 占하는 比重에 비해 이들 國家로 하여금 이루어진 交易額은 훨씬 低率이 되고 있으며 낮은 所得水準에 있다는 그 一面을 말해 준다. 거기에서 東南亞諸國에 依해서 輸入된 金額은 그들에 의해 輸出된 金額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表 1. 年度別로 본 世界交易總額과 東南亞諸國의 交易額의 比較

年度	輸 出 額 1)					輸 入 額 2)				
	世界總額	東南亞 ³⁾	比率 5)	日 本	比率 5)	世界總額	東南亞	比率 5)	日 本	比率 5)
1961	118,300	7,520	6.36	4,236	3.58	124,500	10,000	8.03	5,810	4.67
1962	124,000	7,620	6.14	4,916	3.96	132,100	10,430	7.90	5,637	4.27
1963	135,400	8,430	6.23	5,452	4.03	143,400	11,190	7.80	6,736	4.70
1964	152,100	8,820	5.80	6,674	4.40	160,900	12,150	7.55	7,938	4.93
1965	164,700	9,320	5.66	8,452	5.13	174,800	12,810	7.33	8,169	4.67
1966	180,600	9,770	5.41	9,776	5.42	192,100	13,770	7.17	9,523	4.96
1967	189,800	10,090	5.32	10,442	5.50	201,700	14,680	7.28	11,663	5.78
1968	212,200	11,170	5.26	12,972	6.11	224,300	15,590	6.95	12,989	5.79
1969 ⁴⁾	115,800	5,950	5.14	7,233	6.25	122,400	8,000	6.54	7,022	5.74

資料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Dec. 1969, pp.110~115에서 作成함.

註 : 1) f.o.b. 價格임.

2) c.i.f. 價格임.

3) 여기에는 Burma, Cambodia, Ceylon, Taiwan, Hong Kong, India, Indonecia, Korea, Viet-Nam, Rep이 包含되고 日本은 除外됨.

4) 1~6월까지의 것임.

5) 比率는 世界總去來額에 대한 것임.

東南亞諸國에 依한 輸出은 農産物이 主가 되는데 이들 商品은 國際交易上에 工産品보다 相對的인 比重이 物量 또는 價格面에서 低下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많은 物量의 輸出인데도 不拘하고 그 增加率은 國際交易上의 增加率을 따르지 못하고 累年 그 比

率이 減少되는 傾向에 있다.

1961年度에는 東南亞諸國에 依한 輸出의 比重은 世界輸出總額의 6.36%였는데 1969년에 와서는 5.14%로 低落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地域에 있는 日本은 工業國家로서 工産物을 輸出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交易에 있어서 占하는 日本의 比重은 累年 增加되는 傾向에 있고 1961년에 3.58%의 比重이었던 것이 1969년에 와서는 6.25%로 增加했으며 日本 한 나라에 依한 輸出總額은 東南亞 諸國에 依한 輸出總額의 合計額보다 많다.

反對로 輸入側面을 보면 東南亞 諸國에 依해서 輸入된 合計額은 日本의 輸入總額을 증가하고 또한 東南亞 諸國의 輸出總額을 초과한다. 額出入額이 거의 均衡狀態에 있는 日本과 比較하여 東南亞 諸國은 輸出以上의 輸入으로서 收支上의 不均衡을 免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國際收支上의 不均衡은 外國으로 부터의 援助 혹은 借款으로 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一時的인 米봉책을 벗어난 國際交易上의 均衡이란 문제는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生産構造에 있어 後進된 東南亞 諸國의 農產物 輸出만으로는 國際收支 上의 不均衡을 改善하기에 어려움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2) 東南亞 諸國의 農產物 交易

그 대개의 東南亞 諸國의 輸出商品은 農產物을 비롯한 第一次 產品이 中心이 된다. 東南亞 諸國中에서 우리나라의 交易에 깊은 관계가 있는 몇개의 나라에 있어서의 輸出商品을 類別로 분석해 보았는데, 泰國은 食료품 및 산동물의 輸出額이 그 나라 輸出總額의 折 半以上이고 거기에다 비식용 원재료를 합하면 輸出 總額의 90% 以上이 된다. 필리핀은 食료품 및 산동

물과 비식용 재료를 합해서 80%에 가깝고, 馬來는 비식용 원재료와 광물성 연료의 輸出額이 그 나라 輸出總額의 85%나 된다. 결국 이들 國家는 第一次 產品이 그 나라 輸出總額에 있어서 절대적인 比重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日本은 第一次 產品에 依한 輸出은 거의 없고 각종 제품과 기계류등의 第二次 產品의 輸出이 그 나라 輸出總額의 約 90%를 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과 우리나라는 앞에서의 두 類型과도 다른 중간적인 성격에 있다. 왜냐하면 第二次 產品인 각종 제품의 輸出이 輸出總額의 60%내의 이라는 점은 공업국가에 比率에 가깝고 반면 식료품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輸出이 두 나라 輸出總額의 40%내의 가 된다는 점은 대개의 농업국가에 있어서의 第一次 產品의 輸出比率과 비슷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태국, 필리핀, 馬來등의 전통적인 農業國家와 日本과 같은 工業國家, 우리나라와 대만 처럼 농업국가로 부터 공업화의 과정에 있는 세가지 類型의 經濟構造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가 混在하고 있는 오늘날의 東南亞 經濟構造는 쉽게 變化될 성질이 못되므로 앞으로도 그대로 오래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農產物을 비롯한 第一次 產品이 國際交易에 차지하는 比重은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될 것이다(表 2).

이와 대조적으로 이들 국가에 依한 輸入商品은 공업국가인 日本에 있어서 공업의 원료인 비식용 원재

表 2. 國家別 商品類別 輸出의 比重(1967年度)

品 別	各 國 的 輸 出 總 額 에 대 한 比 率					
	한 국	일 본	대 만	태 국	필 립 핀	마 래 지 아
食 料 品 및 산 동 물	11.9	3.5	36.2	55.6	23.3	6.7
음 료 및 연 초	2.2	0.1	0.2	1.1	1.7	2.1
비 식 용 원 재 료	18.1	2.0	5.0	26.1	56.1	65.6
광 물 성 연 료	0.6	0.3	0.8	0.6	0.6	19.9
등 식 물 성 유 지	—	0.2	—	—	7.0	1.0
화 학 제 품	0.7	6.6	3.4	0.1	0.6	—
원 료 별 제 품	31.7	34.9	30.0	15.2	4.8	1.9
기 계 류	4.4	36.5	9.1	0.1	—	0.7
잡 제 품	30.4	15.4	15.0	0.2	4.4	0.2
특 수 취 급 품	—	0.5	0.3	1.0	1.5	1.9
총 액	996, 140 ¹⁾	10, 442. 41 ²⁾	25, 649. 9 ³⁾	13, 796, 403 ⁴⁾	874. 75 ²⁾	800, 372 ⁵⁾

資料 : UN, Year 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7, pp.177~823에서 계산됨.

註 : 1) 美千弗, 2) 美百萬弗, 3) 臺灣 新百萬弗, 4) 千 Bants, 5) 馬來千弗

表 3. 國家別 商品類別 輸入의 比重(1967年度)

品 別	各國의 輸入總額에 對한 比率						
	한 국	일 본	대 만	태 국	필 립 핀	말레이아	
식료품 및 산 동물	9.4	14.9	6.6	4.7	16.1	18.9	
음 료 및 연 초	0.1	0.6	1.4	1.4	0.5	4.7	
비 식 용 원 재 료	20.9	38.1	22.5	2.6	4.3	1.6	
광 물 성 원 료	6.2	19.2	4.2	7.2	8.8	31.9	
동 식 물 성 유 지	0.7	0.4	0.9	0.1	0.5	0.4	
화 학 제 품	11.3	5.2	12.2	12.0	3.9	4.7	
원 료 별 제 품	18.6	10.8	16.0	29.0	22.8	11.0	
기 계 류	31.1	8.3	33.1	35.1	35.5	19.1	
잡 제 품	1.7	2.1	2.7	5.5	2.4	5.3	
특 수 취 급 품	—	0.4	0.4	2.2	0.2	2.4	
총 액	996,140 ¹⁾	11,664.05 ²⁾	32,313.9 ³⁾	22,042.334 ⁴⁾	1,660.95 ⁵⁾	868,054 ⁵⁾	

資料 : UN, Year 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7, pp.177~823에서 계산됨.

註 : 1) 美千弗, 2) 美萬弗, 3) 台灣新百萬弗, 4) 千Bants, 5) 馬來 千弗

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농업국가인 태국과 필리핀은 기계류를 비롯한 각종의 제품이 그들의 수입금액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업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은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수입총액의 30% 남짓하고 공업원료인 원재료의 비중이 다같이 20%를 약간 넘고 있다. 반면 식료품의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만의 6.6%보다 많은 9.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각국의 수입상품의 내용은 그 나라 경제의 발전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馬來는 特異하게도 광물성 원료의 수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식료품 수입이 된다. 馬來의 농업이 고무, 설탕등 수출상품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國民의 식량은 상당량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3) 東南亞諸國의 交易對象國

東南亞諸國에 있어서의 重要한 輸出對象國을 年次別로 分別해 보았다(表 4). 日本을 除外한 東南亞諸國에 있어서의 輸出은 이웃나라인 같은 東南亞諸國의 地域內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이 輸出總額의 24.5%(1968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西歐諸國과 美國의 順이 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地域內의 交易額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地域外 특히 先進國을 對象으로 하는 輸出이 增大되지 않았다는 結果임으로 하나의 特異한 貿易市場構造라 하겠다.

이에 비해 工業國家인 日本은 美國에 對한 輸出이 輸出總額에 대해 32%를 차지하여 가장 重要한 輸出對

象國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累年 크게 增加되는 傾向에 있다. 日本으로 하여금 東南亞의 農業諸國家에 對한 輸出額은 美國에 對한 輸出總額보다도 적은 額數가 되고 있어 興味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工業國家로서 第二次產品을 輸出하고 있는 日本과 農業國家로서 第一次產品을 輸出하고 있는 東南亞諸國과의 差에 基因되어 交易對象國의 比重이 다르게 되었다. 第一次商品에 對한 先進國의 需要는 工業의 原料가 되는 것에 限定되고 食料品은 主로 農業國家인 後進國에서 需要되고 있으나 後進農業國에서 先進國에 對한 많은 輸出의 增大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農產品 特히 食料品의 輸出을 增大코저 하는 東南亞諸國으로서의 앞으로의 市場開拓의 可能性을 先進工業國에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같이 農業國家인 後進國內部로부터 兪것금 努力해야 할 것 같다.

東南亞地域은 地理적으로 널리 分布되어 있을뿐 아니라 氣候, 土質, 國民의 食性, 生産技術 等の 差에 따라 生産되는 農產品의 種類가 多樣하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이 그들 스스로의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農產品의 相互交易의 增大를 期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自然的 條件과 栽培技術에 따라 相對적으로 有利한 生産을 合理的인 規模下에서 이루어져 交易를 통해 有無長短을 補完한다면 代近業産이 지니는 利益을 얻

表 4. 東南亞諸國의 輸出先과 金額

	東 南 亞 諸 國			日 本		
	1966年 1)	1967年 1)	1968年	1966年	1967年	1968年
先 進 國 2)	2,880	2,920	3,160	2,330	2,480	3,100
後 進 國 2)	1,490	1,630	1,620	1,820	2,110	2,450
美 國	870	880	1,050	1,400	1,390	1,850
카 나 다	73	78	88	125	130	150
南 美	40	54	56	210	230	260
西 歐	1,120	1,060	1,090	590	690	810
東 歐	330	290	305	115	99	100
南 Africa	22	28	27	54	75	73
後進 Africa	160	160	160	270	275	32
日 本	670	720	770	—	—	—
西 亞 細 亞	93	120	115	155	160	
東 南 亞 諸 國	1,120	1,270	1,260	1,140	1,380	
中 國 本 土	84	96	56	170	135	
호 주	130	145	135	155	190	
기 타	81	27	30	40	63	
總 額 3)	4,840	4,960	5,140	4,430	4,820	

資料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Dec. 1967, Dec. 1968, Special Table B에서 作成함.

註 : 1) 66年 67年 68年은 各各 1月부터 6月까지의 總額임.

2) 先進國과 後進國은 보다 細分되어 계산되었으므로 이 表로 계산하기에는 困難함.

3) 總額에는 東歐와 中共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 差가 있음.

을수도 있다. 왜냐하면 交易의 目的이 輸入을 超過하는 輸出로서 單純한 外貨獲得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經濟의 利益이 될 수 있는 方向에서의 商品의 交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우리나라 交易의 現況分析

1954年의 우리나라 輸入總額은 2億4千萬弗에 輸出總額은 그 10分之 1인 2千4百萬弗이었는데 近來에 와서는 엄청나게도 增加되어 1968年의 輸入總額은 近 15億弗, 그에 대한 輸出은 近 5億弗이나 되었다.

지난 15年間 이처럼 많은 增加였는데도 不拘하고 貿易收支上에 나타나는 赤字는 常속도 免치 못하고 있다.

輸出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入超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理由에는 工業品의 輸入代贖을 위한 資本財 導入과 工業原料의 增加에 基因한다. 輸出總額에 있어서의 增加는 하나의 바라는 狀態가 아닐 수 없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輸入總額에 있어서의 增

表 5. 年度別 輸出入 總額에 對한 比較

單位 : 千美弗

年度別	輸出總額	輸入總額	貿易收支
1954	24,246	243,327	-219,081
1955	17,966	341,416	-323,450
1956	24,595	386,063	-316,468
1957	22,202	442,174	-419,972
1958	16,451	378,165	-361,714
1959	19,812	303,807	-283,995
1960	32,827	343,527	-310,700
1961	40,878	316,142	-275,264
1962	54,813	421,782	-366,969
1963	86,802	560,273	-473,471
1964	119,058	404,351	-285,293
1965	175,082	463,442	-288,300
1966	250,334	716,441	-466,107
1967	320,229	996,246	-676,017
1968	455,400	1,468,166	-1,012,766
1969	422,704	871,226	-448,522

資料 : 재무부 무역통계연보; 1968 p.6에서 산출.

대가 억제되어 純 輸出額의 증가를 가져와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1) 輸出商品 및 價額

輸出商品의 相對的인 重要性을 보면 原料別製品 雜製品 食料品 및 生動物 非食料原材料 等の 順이 되고 있다. (表 6)

우리 나라의 輸出은 商品構造上 農業國으로서의 領域을 떠나 工業化의 過程에 있으면서 여러가지의 商品이 輸出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原料別 製品과 雜製品은 近來에 와서 크게 增加되어 1969年度의 計劃額에 對해 64%를 占하고 1966年의 實績額에 對해서는 近 5배나 된다. 그 밖의 다른 商品類는 該간 輸出額에 있어서 2倍內외의 增加가 있었지만 輸出에 占하는 相對的 重要性에는 커다란 變化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輸出이 特定商品의 몇가지에 限定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廣範한 品目을 擇하고 있기에 國際市場의 價格變動에서 오는 變動率을 相對的으로 적게 하는데 利點이 있을뿐만 아니라 國際市場 혹은 輸出對象國의 市場變動에 쉽게 適應할 수 있는 餘地가 많다 하겠다.

表 6. 年度別로 본 輸出商品의 數量別 比

項 目	年 度 別			
	66	67	68	69
食料品 및 生動物	16.5	11.9	9.8	12.4
飲料 및 煙草	2.8	2.2	1.9	1.5
非食用 原材料	18.6	18.1	13.5	10.8
鑛物性 燃料	0.6	0.6	0.5	0.3
動物性 및 植物性 油指	0.1	—	—	—
化學 製品	0.3	0.7	0.7	2.3
原料別 製品	33.6	31.7	31.5	31.8
機械 및 運搬用 機具	3.8	4.4	5.4	9.2
雜 製 品	23.6	30.4	36.7	31.7
特 殊 去 來 品	0.1	—	—	—
輸 出 總 額	千弗 41,274	千弗 320,229	千弗 455,400	千弗 700,000

이러한 輸出에 있어서 農水産物이 占하는 比重은 年間 輸出總額의 40% 內外가 되고 있는데 이 比率은 農業이 國民總生産에 占하는 比重과 거의 같은 것이 된다. 國民의 折半이 農業에 從事하고는 있지만 過小의 經營規模와 低度의 生産技術은 生産量이

적고 그 대개의 農家에서는 生産物을 市場化할 수 있는 餘力이 없기 때문에 輸出에 寄與하는 農業의 比重이 아주 낮다. 이와 함께 急增되는 人口의 食糧需要까지 겹쳐 農産物이 輸出에 公認하는 정도는 앞으로 도 보다 低下될 可能性마저 있다. 현재의 農産物 輸出에서도 耕種에서 얻어진 生産物의 比重은 아주 적고 水産物과 林産物이 主가 된다.

이러한 1969年度의 輸出目標額 7億弗 중에서 81.5%인 5億7千萬弗이 工産物 輸出이고 나머지 1億3千萬弗의 輸出額은 그 折半이 水産物의 輸出이며 農産物은 3.4%인 2千4百萬弗에 不過하다.

농산물 중에서 수출상품으로서 중요한 것은 담배, 인삼등의 농산물이 수출상품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을 뿐 그 대부분은 海苔, 鮮魚, 寒天, 魚分類, 새우, 活魚등의 水産物이 수출되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이 아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출은 人口가 增加되더라도 계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하겠다.

다만 工業製品의 生産增加率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農産物이 輸出總額에 占하는 相對的인 比重은 減少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万若에 우리의 經濟事情으로 水産業이 增投를 許容한다면 採取業으로서의 보다 많은 收量을 얻을 수 있는 餘地가 많고 增加된 收量은 輸出商品으로서 더 많은 比重을 占할 수 있는 餘地도 있다.

輸出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相對國은 그 數에 있어서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分布는 6大州에 걸쳐 있다. 地域의으로 交易이 有利한 亞細亞諸國과의 交易額은 累年 減少되어 1966년에는 33%, 1969年の 계획에는 40%였다.

北美州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그 比重이 累年 增加되는 추세에 있고 1969年の 계획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近 折半을 占하고 있다.

아세아의 여러 나라중에는 日本에 대한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아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26.6%를 占하고 있다(表 8). 결국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이 全體額의 80%가 되고 그밖의 거의 모든 나라에 對한 年間 수출액은 萬弗以下이고 萬弗을 약간 넘는 나라에 월남, 홍콩, 캐나다와 대만 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은 近代化된 國家이므로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와의 交易에는 相互補完하는 機能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利益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東南亞의 여러나라는 우선 經濟構造가 우리

表 7. 農 產 物 의 輸 出 實 績

品 名	輸 出		
	1 9 6 6	1 9 6 7	1 9 6 8
生 動 物	11,729	53,053	104
鳥 獸 肉 및 同 調 製 品	101,846	92,376	845
酪 農 製 品 및 鳥 卵	10	8	4
魚 介 類 및 同 調 製 品	21,663,685	29,916,736	25,791
穀 類 및 同 調 製 品	7,279,938	837,302	808
果 實 및 菜 蔬 類	10,382,826	9,002,317	15,636
雪 糖 類 同 製 品 및 蜂 蜜	718,369	765,943	808
커피, 茶, 코코아, 香料 및 同 製 品	46,955	82,272	107
飼 料(粉粹하지 않은 穀類除外)	151,141	137,791	268
其 他 食 料 調 製 品	—	—	123
煙 草 및 煙 草 製 品	36,498,340	6,668,232	7,701
原 皮 類 및 毛 皮	183,379	77,152	80
採 油 種 子 및 核 子	34,597	46,552	18
生 工 木	24	1,020	—
木 材 및 코 오 크	280,882	2,678,882	46
織 物 織 維	12,700,098	16,723,981	20,023
動 物 性 및 植 物 性 原 材 料	7,628,396	10,853,184	9,306
動 物 性 油 脂	33,018	60,321	88
植 物 性 油 脂	81	128	—
動 植 物 性 의 加 工 油 脂 및 蠟	103,904	58,602	23
化 學 原 料 및 同 化 合 物	—	—	540
精 油, 香 料, 化 粧 品, 磨 劑 및 洗 淨 劑	—	—	7
化 學 材 料 및 化 學 製 品	—	2,814	235
木 製 品 및 코 오 크 製 品	29,959,330	36,421,267	69,919
雜 製 品	948,530	1,028,389	40,935
特 殊 取 扱 品	85,251	125,703	187
合 計	(A)98,830,330	112,633,679	189,572
總 輸 出 額	(B)249,538,460	320,228,554	455,400
比 率 (%)	39.6	35.2	41.6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68, p.145(1966 및 67年度); 재무부, 무역통계년보, 1968, pp.22~27에서 계산함.

와 비슷함에 있고 거기에는 다같이 工業化의 過程에 있기 때문에 先進國으로 부터의 資本財 輸入에 重點을 두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商品을 수입하는데 관심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經濟的 餘力마저 없을 것이므로 우리의 商品市場으로서의 重要度는 낮은 것 같다.

2) 輸入商品 및 價格

1968年의 輸入總額을 地域別로 보면 輸出總額에 있어서의 比重과는 다르게 아세아의 여러나라로 부터 수입된 금액이 수출총액의 56.2%를 占하고 그 다음이 北美州의 31.9%와 유럽의 10.4%의 順이 된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日本에서 輸入이된 총액이 우리나라 수입총액의 절대적인 比重인 42.5%를 占하고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30.8%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 두 나라로 부터의 수입이 都合 73.3%가 되고 그외의 여러나라로서 우리나라 수입총액의 2% 内外를 占하는 필리핀, 말레이아, 쿠웨이트, 대만, 이란 등의 몇 나라가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수입총액의 1%에도 未及되는 것이 大部分이다.

工業化를 時急히 達成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事情 으로서는 資本財의 導入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다

表 8. 國別 輸出實績 및 計劃(亞細亞)

項 目	年 度 別			
	66	67	68	69
수 출 총 액	千弗 250,334	千弗 320,229	千弗 455,400	千弗 700,000
	%	%	%	%
아 세 아 합 계	41.88	40.33	33.3	40.1
중 국	0.83	0.97	1.3	1.4
홍 콩	3.79	4.75	3.4	2.2
일 본	26.48	26.46	21.9	26.6
말 레 지 아	0.15	0.10	0	—
필 리 핀	0.32	0.18	0.2	—
싱 가 폴	1.00	1.29	2.4	1.6
태 국	1.90	1.76	1.2	1.0
월 남	5.53	2.30	1.2	5.7
인 도	0.32	0.39	0.3	1.1

資料: 재무부, 무역통계년보, 1968, pp.9~15 계 획 금액임.

점이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액을 많게 하는 것 같다.

表 9. 國別 輸入 實績

項 目	年 度 別			
	66	67	68	69
수 입 총 액	千弗 716,441	千弗 996,246	千弗 1468,166	千弗 871,226
	%	%	%	%
수 입 아세아합계	53.71	57.6	56.2	56.8
홍 콩	1.07	1.21	1.00	0.27
일 본	41.01	44.47	42.50	40.24
대 만	1.51	2.73	1.10	1.45
말 레 지 아	1.41	1.90	2.50	4.33
필 리 핀	2.92	2.20	2.30	2.74
싱 가 폴	0.36	0.50	0.30	—
태 국	0.12	0.05	0.10	—
비 월 남	—	0.05	0.10	—
울 인도네시아	0.15	0.12	0.90	1.1

資料: 재무부, 무역통계년보, 1968, pp.17~21, 1969年은 1~8월실적; 상공부 수입통계월보, 1969.8

輸入되는 商品은 工業化로 産業構造를 變化코저 하는 政府施策에 反映되어 資本財인 機械類의 導入이 가장 많을 뿐만이 아니라 累年 緩저하게 增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工業의 原料인 木材, 石油, 직물섬유, 강철과 곡물이 主된 수입품목이 되고 있다.

기계의 도입에 관한 限 先進工業國家인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불가피 하겠지만 이들 두 나라의 比重이 너무도 크다는 點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의 國內에 있어서의 經濟施策과 景氣變動은 곧 우리나라의 國民經濟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輸出産業에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으므로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國民經濟가 不安한 狀態下에 있게될 脆弱性을 免치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輸入財源은 미국의 원조자금, 日本으로 부터의 청구권자금, 차관등에 크게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로 부터의 수입이 되어야 할 理由도 있겠지만 健全한 우리나라의 經濟構造 또는 東南亞 後進諸國과의 相互 福祉를 위한 交易의 增大란 觀點에서 본다면 어느때 가서는 是正되어야 할 것 같다.

表 10. 年度別로本 輸入商品의 類別 單位: 千弗

項 目	年 度 別			
	66	67	68	69
식료품및산동물	72,365	94,118	167,538	115,718
음료및연초	270	783	1,391	799
비식용원재료	153,925	208,470	270,434	164,420
광물성연료, 운활유	42,448	61,608	75,537	57,213
동물성및식물성유지	5,492	6,945	8,292	3,677
화 학 품	134,544	113,046	130,290	79,875
원료별제품	125,199	183,720	242,160	141,680
기계류	171,722	310,193	533,198	217,170
잡제품	10,450	17,221	38,882	16,171
특수취급품	26	142	444	74,501
총 액	716,441	996,246	1468,166	871,226

資料: 재무부, 무역통계년보, 1968, pp.28~33 상공부, 수입통계월보, 1969.8, p.6

※ 69年은 1~8月間의 實績임.

尙今도 農業은 主된 우리의 産業이 되고 있는테도 不拘하고 식료품 및 산동물의 수입액이 상당한 比重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수입되는 농산물이 氣候, 生産技術등의 사정으로 國內生産이 불가능한 것에 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 식량이 되고 있는 곡물마저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農作物 輸出에는 많은 制約이 있고 이를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穀物爲主의 농업형태로 부터 輸出農業에 主眼을 둔 經

營形態로 一部 代替되어야 하고 여기에 導入되는 農業은 高度의 生産技術을 要하고 東南亞諸國과는 다른 氣候條件을 감안한 商品을 選擇하여 生産하였을때 交易增大 혹은 輸出增大의 希望은 可能하게 될 것이다

III. 東南亞 諸國과의 交易增大에 관한 展望 및 方案

1) 交易增大의 展望

農業을 主産業으로 하면서도 조밀한 人口와 低度의 生産기술 때문에 농산물마저 수출할 餘力이 없는 것이 하나의 共通의 事實이 되고 있는 東南亞諸國과의 交易增大은 가까운 將來에 크게 期待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畧이 있다.

그렇지만 現在의 交易量은 주어진 狀態下에서도 極大值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국이 경제정책의 餘하에 따라서는 지금의 상태하에서도 더 많은 交易을 할수 있다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다. 交易의 原理는 交易이 이룩되는 相互間에 利益이 發生하므로써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國家間의 交易이란 自然的으로 調和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交易을 模索하는 서로의 努力이 先行되어야 하며 그 結果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增大될 交易量을 測定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東南亞의 모든 나라에 제각기 交易에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戰略의 商品을 開發하는데 成功하고 이를 뒷받침할 生産기술과 이에 적응하여 生産구조에 變化를 가져 온다면 交易增大 혹은 輸入增大이라는 우리의 속원에 빛을 얻게 될 것이다.

2) 交易增大의 方案

i) 東南亞 諸國은 다같이 Mon-soon 地帶에 位置하는 탓으로 米作中心의 農業이고 또한 國民의 主食이 되고 있다.

米作은 尙今도 傳統的 生産樣式下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食糧을 充足하고 輸出品으로서의 餘裕를 갖지 못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태국, 대만, Burma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米穀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重要性은 점차로 低下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작물로서의 수출산품은 그 모든 나라에 있어서 中心의이고 共通性을 지니는 米穀以外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다같이 農業이 産業의 中心이지만 農業이 營爲되는 基盤條件에 있어서 서로 크게 差異가 있다. 다시

말해서 熱帶, 亞熱帶와 溫帶의 氣候差를 갖고 分布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農業生産技術에 있어서도 서로 差異가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둔 그 나라 特産物을 새로 개발하여 輸出하고 反面 相對的 生産費에 있어서 不利한 生産物은 輸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熱帶에 있어서 生育이 不實한 果實·채소등이 溫帶國에서 栽培될 수 없는 熱帶國의 生産물과 相互交易할 수 있다면 確實히 서로의 利益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의 去來에 있어서 現金으로서 交割되어야 할 아무런 理由가 없고 現物을 去來하는 求價貿易方式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i) 交易增大을 위해서는 相對國의 生産實態를 正確히 파악해야 함은 물론 어떠한 交易이 遂行되었을 때 서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方法인가를 棉密히 檢討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 生産物에 대한 市場調査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輸出市場의 要求充足을 위해 보다 많은 資源을 輸出財 生産部門에 配分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積極的인 政策과 施策으로서 뒷받침되어 推進해야만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東南亞諸國과의 農産物 交易增大은 交易의 原理 以上인 格別한 배리가 要求된다.

왜냐하면 遊休의 餘地없이 모든 農土는 耕作되고 있는데 輸出을 위한 生産物을 보다 많이 얻는 길은 기술의 變化가 없는 限 다른 作物의 耕作을 포기하고 그 資源을 여기에 配分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資源의 再配分은 어떤 利益이 隨伴되었을 때는 순조로히 이루어 질 것이다.

iii) 수출증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政策은 僻이나 多樣했다.

이를테면 稅制와 金融의 특혜, 補償金의 支拂, 링크 輸入, 投資에 대한 우선권, 輸出用 資材의 一部에 對한 內需販賣 등으로 輸出産業을 지원 했으며 그에 따르는 効果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施策을 앞으로도 계속 혹은 더 強化해야만 한다면 마침내 財政 또는 金融面에 지나친 負擔을 招來하고 멀지 않아 그 限界에 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輸出을 위한 앞으로의 努力을 이러한 施策以外에 合理的인 生産規模와 生産技術의 향상을 통한 낮은 費用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에 集中되어야 할 것 같다.

수출의 目的이 利益을 얻는데 있다고 한다면 經營面의 改善이 先行되어야만 우리의 外貨稼得率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輸出할 수 있는 여러 商品生産 중에서 相對國의 市場을 감안한 가장 有利한 商品의 生産을 가장 有利한 方法으로 이룩하도록 限定된 國內資源이

配分되어야 할것 같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輸出에는 더 많은 종류의 상품 드는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輸出한다는 一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輸出할 수 있는 상품중에서 有利한 것을 보다 成長하는데 充實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 같다.